■ 대학가 기말고사 '이색 문제 기발한 답변'

問 "性이란 무엇?" 答 "고마운 것이다"

'너희가 시험을 아느냐?'

대학생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뚫기 위해 높은 학점 취득에 몸이 달아있는 요즘, 교수들의 독특한 발상과 문제 출제, 학생들의 재치있는 답안 작성이 캠퍼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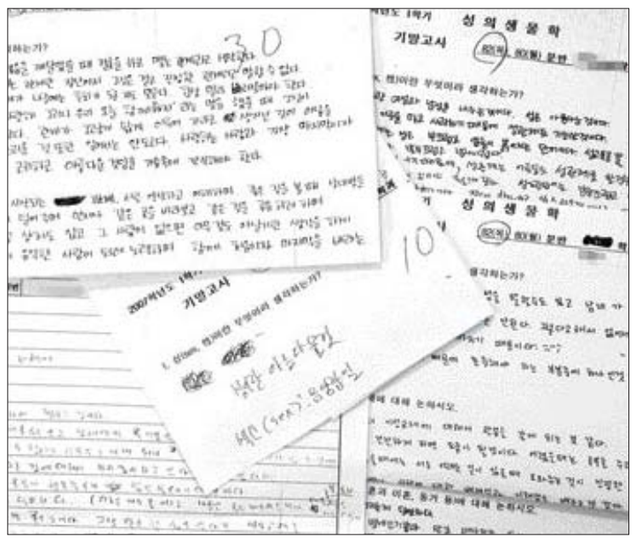
광주여대 언어치료학과 1학년인 문혜정(여·20)씨는 최근 전공과목인 '언어병리학'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다음 중 성대결절(聲帶結節·성대를 혹사해서 생기는 염증)이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이란 질문과 함께 박경림·하하·박명수·유재석·정준하 등 연예인 5명 중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이다.

신혜정(여·37·언어치료학과) 교수는 "47명의 학생 중 46명은 박경림이라고 정답을 맞췄지만 1명은 박명수라고 써 틀렸다"며 "전공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전공과 연관된 가벼운 문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의 기발하고 황당한 문제 출제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저런 답안을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답으로 화답했다.

조선대에서 '성의 생물학'이란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나영희(38) 강사는 지난 4월 중간고사에서 '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낸데 이어 기말고사에서는 '도대체 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유사한 문제를 출제,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수업을 들은 학생 265명의 답안도 의외로 솔직·발랄했다. 서모(20)씨는 "섹스(SEX)란 음양합일이다"고 적어 4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으며, 나모(20)씨는 "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성이 없었다면 지금 여자친구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없었을 테니까"라고 답해 30점을 받았다. 이 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2명만이 F학점을 맞았으며, 대부분 A·B학점을 받았다.


조선대학교 '성의 생물학' 과목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 '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도 기발한 답들이 많았다.

조선대학교 교가를 쓰시오
성대결절 의심되는 연예인은?
전남대 평생교육원 옆 건물은?

문제를 출제한 강사는 "중간고사를 치를 때에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 확립이 부족했기 때문에 답이 정확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평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교가(校歌)를 시험문제로 내는 교수도 있다. 조선대에서 '독일문화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박대환(53·독일어과) 교수는 "우리 대학 교가를 쓰시오"라는 문제를 내겠다고 공지한 후 기말고사에서 교가를 써내도록 한 것이다.

채점 결과 전체 수강생 400명 중 360명은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랴. 파도건 눈보라건 박차 헤치자…'는 답을 제대로 적어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겨우 절반 정도만 쓰는데 그쳤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애교심을 고취시켜주는 것이 학교와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좋을 것 같아 5년째 교가 문제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대 이정록(50·지리학과) 교수는 '세계민족과 지역문제의 이해'라는 과목 시험에서 '전남대 평생교육원 건물 오른쪽에는 대강당이 있다'는 문제를 내고 '○·×'로 답하도록 했다. 수업을 들은 90명의 학생 중 10여 명은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이 교수는 "모교의 건물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전남대 학생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건물 위치를 물었다"고 말했다.

이외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현대생활과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있는 방송인 김병조씨는 시험 대신 '아버지에게 양말 선물 드리기'로 대체, 수강생들을 즐겁게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첨단고등학생 '조선대 캠퍼스 투어' 광주 첨단고등학교 학생들이 12일 조선대 전기공학과를 방문, 전류 실험을 하고 있다. 첨단고 학생 107명은 이날 홍보도우미의 안내로 캠퍼스를 둘러보고 자신이 관심 있는 학과를 방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당뇨환자 산행 중 '저혈당 쇼크死'

60대 지리산 피아골서

지리산 산행에 나선 당뇨 환자가 '저혈당 쇼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1일 오후 2시10분께 지리산 산행을 하던 김모(68)씨가 피아골 대피소 아래 등산로에서 갑자기 숨졌다.

김씨는 이날 청주지역 산악회 회원 70여 명과 노고단~피아골 코스를 5시간여 동안 산행한 후 '저혈당 쇼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 환자가 끼니를 거르거나 무리한 산행·해수욕을 하면 체내 혈당이 40~50㎎/dl 이하로 떨어져 경련·발작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

광주 동아병원 정균호 원장은 "당뇨 환자가 ·배고픔·두통·식은땀·가슴 두근거림·온몸이 떨리고 손발 저림 등을 느낀다면 체내 혈당이 떨어졌다는 증거"라며 "약을 꼭 챙기고, 사탕·초콜릿 등을 가져가 몸 상태가 나빠지면 이를 먹은 뒤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북부경찰서 "풍속화 아하다" 교체

쌍나팔

○…광주 북부경찰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 벽면(정면 가로 5m·세로 3.5m, 좌·우측 가로 4m·세로 3.5m)에 그려진 조선 후기 풍속화가인 신윤복의 '단오풍정'(端午風情)이 하루 만에 풍경화인 '사계'(四季)로 바뀌어 그 배경에 관심.

○…(사)사회적예술기업 측은 창포물로 머리 감는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밑그림을 그렸으나, 일부 직원들이 "너무 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해 변경키로 한 것.

○…화가 장모(45)씨는 "벽화를 다시 그려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어떤 그림이든 유치인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

○…(사)사회적예술기업 측은 북부경찰의 요청을 받아 지난 11일부터 무료로 벽화를 작업 중이었다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거짓반론 청구 신문사에 배상해야"

여운환씨 패소

자신의 해명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해 기사화됐다면 해당 신문사가 반론보도 등을 위해 할애했던 지면에 광고를 실어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을 반론 청구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2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여운환씨가 '허위보도로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씨의 반론보도에 쓰인 지면과 여씨의 반론청구가 기각됐다는 보도에 할애될 지면 크기에 광고를 실어 얻을 수 있는 수익 1천만원씩을 두 신문사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며 "반론보도를 실어줬을 때에는 해당 기사와 항소심 재판 결과 보도 등에 필요한 지면게재 사용료를 청구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동아일보 · 중앙일보가 '여씨가 이용호씨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하자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나중에 본인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횡령' 아파트 소장 중형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2일 2억원대의 관리비를 횡령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1년2월)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3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중생들 집단 성폭행 고교 1년생 10명 검거

광주 광산경찰은 11일 또래 여중생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A(16)군 등 광주 모 고교 1년생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부터 광산문화예술회관 등에서 B(14)양 등 여중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A군 등은 그러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